

# 자기애적 과시, 허용적 성태도,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 간의 관계: 상태공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박 다 원  
국립춘천병원 정신건강과

이 인 혜<sup>†</sup>  
강원대학교 심리학과

자기애와 허용적 성태도는 성폭력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그리고 상태공감은 보호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해 세부적이고 통합적인 이해를 제공하여 성 범죄 예방 및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자기애와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의 관계에서 허용적 성태도의 매개효과가 상태공감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검증하였다. 210명의 남자 대학생에게 자기애성 성격 검사, 병리적 자기애 척도, 아동 성폭력범 공감척도, 성폭력 가해 행동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자기애 하위요인 중에서 유일하게 과시(exhibitionism)만이 경미한 성폭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허용적 성태도의 하위요인인 충동적 성행동과 개방적 성태도는 각각 자기애-과시와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변수로 확인되었다. 셋째, 상태공감이 낮을 때는 매개효과의 크기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반대로 상태공감이 높을 때는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즉, 자기애-과시와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의 관계에서 허용적 성태도의 하위요인 각각의 매개효과는 상태공감에 의해 조절되었다. 결론적으로, 남성의 경우에 자기애-과시와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의 관계에서 충동적인 성행동 혹은 개방적 성태도의 매개효과는 상태공감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자기애-과시, 충동적 성행동, 개방적 성태도, 상태공감,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

---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인혜, (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Tel: 033-250-6850, E-mail: inheyi@kangwon.ac.kr

본 연구는 성폭력의 위협요인으로 제안된 자기애, 그리고 이들 사이를 매개 혹은 조절하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기애와 성폭력 가해 행동의 관계에서 허용적 상태도가 매개변인으로 밝혀졌고(박갑제, 임성문, 2013), 일부 연구에서는 완전 매개효과가 입증되었다(Mouilso & Calhoun, 2012). 나아가 박다원과 이인혜(2015)는 위 결과들에 더불어 상태공감이 조절변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수행된 최근 연구들은 주요 연구변인들의 하위요인에 대해 충분히 탐색하지 못했다. 게다가 음란성 문자와 같은 경미한 수준의 성폭력에서부터 강간처럼 심각한 수준의 성폭력에 이르는 확장된 성폭력의 법적인 정의를 구분하여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의 수준에 따라 관련된 요인도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았다.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죄로 강간뿐 아니라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전화, 온라인을 통한 성폭력 등을 포함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굴욕적인 감정, 신체적 손상 및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4; 신현기, 이상열, 2006). 위의 정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법적으로 정의된 성폭력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의 사용에서부터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고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강간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그러므로 성폭력의 심각성 수준을 구분하여 이에 따른 세분화 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대 남성들을 대상으로 학교,

직장 등의 일상적인 장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경미한 수준의 성폭력 가해 행동에 집중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성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20대 남성들 중 대다수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준의 성폭력 가해 경험만 있었다(박다원, 이인혜, 2015). 강간미수 혹은 강간과 같은 심각한 수준의 성폭력 가해 행동은 쉽게 외부로 드러나기 때문에 대부분 공권력에 의해 처벌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다. 그러나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은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학교, 직장, 사교모임 등 현대인들의 생활과 매우 가까운 곳에서 쉽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기도 한다. 그러므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성폭력 범죄 예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무심하게 지나치는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특히, 사회문화적인 요인보다 개인내적인 요인과 성폭력 가해 행동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승희와 권일웅(2015)은 여성들의 경우 직업적인 장면에서 채용 후 승진이나 고위직으로의 승진에서도 유리천장, 즉,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유교 문화의 잔재로 인해 여성을 남성보다 하등한 혹은 부족한 존재로 평가하는 남성우월주의적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남성들은 여성을 성적 농담의 대상으로 삼는 등 성폭력으로 분류되는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의 심각성을 과소평가 할 수도 있다. 대개 동시대에 동일한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은 정도는 다르더라도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 사람들만 성폭력을 저지른다. 국가통계포털의 자료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총 인구수는 2011년을 기준으로 50,734,284명이었고, 대검찰청의 자료에서 2011년 성폭력 범죄는 월 평균 1,836건이다(박다원, 2015). 이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매년 약 2만 명이 성폭력 범죄에 연루되며, 이는 극히 일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만 성폭력 가해 행동을 하게 만드는 성격적 특징이나 정서 상태와 같은 개인내적 요인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개인내적 요인에 대한 깊은 이해는 성폭력에 대한 적절한 사전 교육과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자기애, 허용적 성태도, 상태공감, 그리고 성폭력 가해 행동의 관계를 각 변인들의 하위요인 별로 세분화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정상적인 자기애는 대상표상과 성숙한 초자아, 그리고 안정된 대상관계 및 가치체계 속에서 발생하는 존중욕구가 전체로써 잘 통합되어 있는 상태이다(Kernberg, Clarkin, Fonagy, & Gabbard, 2010). 즉, 정상적인 자기애란 타인의 느낌에 공감하고 진실한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며, 관계를 유지하고 양가적 감정을 인내할 수 있는 능력과 대인관계 상의 갈등에 대하여 자신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Gabbard, 2008). 반면에 병리적인 자기애는 자존감이 타인들로부터 존중받거나 혹은 비난받는 경험에 따라 심하게 변화하는 상태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과도하게 자기중심적이고, 팽창된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외부로부터 찬사를 받기 원하는 모순된 모습'이 특징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이처럼 자기애는 하나의 단일

요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성, 팽창된 자기개념, 자기과시 등의 여러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DSM-5의 자기애성 성격장애 진단기준을 살펴보면, 자신에 대한 과장된 감각, 성공이나 권력에 대한 과도한 환상, 타인에 의해 이해받아야만 한다는 믿음, 존경받기를 원하는 지나친 욕구, 타인에 대한 착취성, 그리고 공감 능력의 결핍 등이 포함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이를 경험적으로 확인한 Raskin과 Terry(1988)의 연구에서 자기애는 '권위', '자기충분성', '우월성', '과시', '착취성', '허영심', 그리고 '특권의식' 총 7개의 하위요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으로 자기애는 다양한 변인들과 관련된다. Jonason과 Tost(2010)는 자기애적인 사람들의 자기조절 능력이 빈약하다고 하였고, Wai와 Tiliopoulos(2012)는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이 일반인에 비해 인지적, 정서적 공감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였다. 아울러, Foster, Shrira, 그리고 Campbell(2006)은 자기애적인 사람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가능한 많은 사람과 성관계를 갖기 원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자기애와 허용적 성태도의 관련성을 시사한다. 더욱이 선행연구들에서 자기애와 허용적 성태도 사이에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박다원, 이인혜, 2015; Mouliso & Calhoun, 2012).

허용적 성태도는 '가능한 많은 사람과 가벼운 성관계를 추구하는 개인의 성향'으로 정의된다(박갑제, 임성문, 2013). Hendrick와 Hendrick(1987)는 다차원적 성태도에 대한 연구에서 허용적 성태도가 탈억제(disinhibition), 권태 민감성(boredom susceptibility), 그리고 경험추구(experience

seeking)와 관련성이 높다고 하였다. 더불어, 허용적 성태도는 병리적인 성격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Mouilso와 Calhoun의 연구(2012)에서 허용적 성태도가 정신병질(psychopathy)과 성폭력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다른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자기애와 성폭력 간에 허용적 성태도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박갑제, 임성문, 2013; 박다원, 이인혜, 2015). 특히, Mouilso와 Calhoun의 연구(2012), 그리고 박다원과 이인혜의 연구(2015)는 자기애와 성폭력 가해 행동 간에 허용적 성태도의 완전 매개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자기애가 높다고 반드시 성폭력 가해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애가 높다 하더라도 허용적 성태도가 높아야만 성폭력 가해 행동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기애와 성폭력 가해 행동 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허용적 성태도를 통한 간접적인 관계만 유의하며, 실제로는 자기애가 아니라 허용적 성태도와 성폭력 가해 행동 간에 직접적인 정적 관련성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기애가 허용적 성태도를 통해서만 성폭력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 직접적인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지만(Mouilso & Calhoun, 2012), 성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자기애와 상태공감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다는 결과(박다원, 이인혜, 2015)를 고려하면, 성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자기애의 직접효과가 상태공감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매개변인인 허용적 성태도를 통한 간접효과가 상태공감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안정적인 성격 차원의 특성공감과는 다르게 상태공감은 특정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가변적이고

상태의존적인 공감으로 Steibe 등(1979: 박성희, 2004에서 재인용)이 제안한 개념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상태공감이 자기애와 성폭력 가해 행동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구체적으로 자기애가 높은 경우에 상태공감이 낮으면 성폭력 가해 행동이 높게 나타났지만, 반대로 상태공감이 높으면 성폭력 가해 행동이 낮았다(박다원, 이인혜, 2015). 이는 성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자기애의 효과가 상태공감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자기애와 성폭력 가해 행동의 관계는 허용적 성태도에 의해 완전 매개되므로, 자기애의 직접효과가 아니라 실제로는 허용적 성태도를 통한 간접효과가 상태공감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남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경미한 수준의 성폭력에 대해 탐색함으로써, 성폭력 관련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경미한 수준의 성폭력 가해 행동의 심각성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거나, 직업적인 장면의 위계질서 내에서 은연중에 발생하는 등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다소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경미한 성폭력과 관련된 각 변인들을 구성하는 하위요인들을 밝히고 연구변인들의 관계를 하위요인 별로 확인함으로써, 성폭력의 예방 및 치료에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박다원과 이인혜의 연구(2015)에 사용된 자료를 재분석하였다.

먼저, 본 연구자는 하위요인이 밝혀지지 않은 허용적 성태도와 성폭력 가해 행동의 내적 요인 구조를 확인하였다. Hendrick 다차원적 성태도 질

문지로 측정된 허용적 성태도와 이형직(2008)의 성폭력 가해 행동 질문지로 측정된 성폭력 가해 행동이 단일한 요인으로 이루어진 개념이 아닐 것으로 예측하였다.

다음으로, 요인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각 변인들의 관계를 하위요인 별로 검증하였다. 또한, 과거의 연구들은 자기애와 성폭력 가해 행동 간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각각 분리하여 검증했던 반면에 본 연구는 자기애, 허용적 성태도, 상태공감, 그리고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검증하였다. 즉, 자기애가 허용적 성태도를 거쳐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으로 연결될 때 허용적 성태도가 상태공감과 상호작용함으로써, 허용적 성태도의 효과가 개인의 상태공감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예측하였다. 요약하면, 상태공감이 자기애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애와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의 관계에서 상태공감에 의해 조절된 허용적 성태도의 매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기애, 허용적 성태도 그리고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의 매개 모형에서 허용적 성태도에 대한 자기애와 상태공감의 상호작용 효과와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허용적 성태도와 상태공감의 상호작용 효과 두 경우를 가정하고 검증하였다.

## 방 법

### 참여자

강원대학교에서 정신건강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남학생 264명을 대상으로, 강원대학교 생명윤리위

원회의 승인을 받고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이 중 결측값이 포함된 54명을 제외하고 총 21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연령 평균은 22.6세, 표준편차는 2.31이었다.

### 측정도구

**자기애.** 자기애성 성격 검사(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는 Raskin과 Hall(1979)이 DSM-III의 자기애성 성격장애 진단기준을 근거로 개발한 자기보고식 검사로 원래 5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Raskin과 Terry(1988)가 40문항으로 단축하였다. 자기애적인 문항과 그렇지 않은 문항 중에 선택하는 방식으로, 최소 0점부터 최대 40점까지 범위에서 총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애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NPI는 권위, 자기충분성, 우월성, 과시, 착취성, 허영심, 특권의식 총 7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전체 .84, 권위 .73, 자기충분성 .39, 우월성 .60, 과시 .64, 착취성 .43, 허영심 .35, 특권의식 .43이었다. NPI의 하위척도와 문항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권위: “나 자신을 좋은 리더 라고 생각한다”
- 자기충분성: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 우월성: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과시: “나는 여러 사람에게서 주목받는 것을 좋아한다”
- 착취성: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 나에게서 쉬운 일이다”
- 허영심: “나는 거울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 특권의식: “나는 내가 받아 마땅한 대접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

**허용적 성태도.**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관점에서 개인의 성태도를 확인하기 위한 Hendrick와 Hendrick(1987)가 개발한 다차원적 성태도 질문지 (Multidimensionality of Sexual Attitudes Scale, MSAS)를 최인숙(2009)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 허용성에 대한 15개의 문항만 사용하였으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성태도가 허용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허용적 성태도는 충동적 성행동, 개방적 성태도, 긍정적 인상 총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전체 .86, 충동적 성행동 .88, 개방적 성태도 .77, 긍정적 인상 .58이었다. 허용적 성태도의 하위요인과 문항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충동적 성행동: “어쩌다 만난 사람과의 우발적인 성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다(허용할 수 있다)”
- 개방적 성태도: “현재 만나는 사람과 꾸준히 성관계를 해도 괜찮다”
- 긍정적 인상: “성관계는 우선 상대방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상태공감.** 상태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Fernandez, Marshall, Lightbody, 및 O'Sullivan (1999)이 개발한 아동 성폭력범 공감 척도(Child Molester Empathy Measure, CMEM)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Part A와 Part B로 나누어지는데, Part A는 여러 상황을 제시하고 각 상황의 피해자가 느낄 감정의 정도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고, Part B는 특정 상황에서 자신에게 생겨나는 공감적 반응에 대해서 0점부터 10점까지로 자기보고 하도록 한다(김정아, 구혜경, 현명호,

2013).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공감의 정도를 평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Part B를 사용하였다. 김정아 등(2013)이 본 척도를 사용하여 수행한 대학생들의 성폭력에 대한 연구에서, 상태공감이 높을수록 긍정적 사회행동의 빈도가 많다고 밝혀졌으며, 성인을 대상으로도 타당한 결과 해석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0이었다.

**성폭력 가해 행동.** 이형직(2008)이 사용한 성폭력 가해 경험을 묻는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지난 1년 간의 성폭력 가해 경험을 자기보고 하도록 하는 질문지로, 음란 문자와 같은 경미한 수준의 성폭력에서부터 강간에 이르는 심각한 성폭력 가해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성폭력 가해 행동은 경미한 성폭력과 심각한 성폭력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전체 .54,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 .60, 심각한 성폭력 가해 행동 .44이었다. 성폭력 가해 행동의 하위요인과 문항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 “성적으로 놀린(농담 등) 적이 있다”
- 심각한 성폭력 가해 행동: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다 실패한 적이 있다”

## 자료분석

내적 요인 구조가 확인되지 않은 변인들의 하위요인을 밝히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Baron과 Kenny(1986), 그리고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절효과의 유형을 확인하고, 매개효과와 조절효과가 결합된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가 제안한 SPSS macro PROCESS를 이용하였다. SPSS Windows 22를 사용하였다.

### 결 과

#### 허용적 성태도와 성폭력 가해 행동의 내적 요인 구조

허용적 성태도와 성폭력 가해 행동의 요인 구

조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변인들 간의 세부적인 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허용적 성태도와 성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허용적 성태도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 인지를 확인하였다. 요인분석 이전에 KMO (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도 검정 결과가 .89로 .50 이상이었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이 유의하였으므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였다( $\chi^2_{105} = 1206.98, p < .001$ ). 배리맥스(varimax) 회전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허용적 성태도에서 3개의 하위요인을 발견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처음 만난 사람과의 충동적이고 갑작스러

표 1. 허용적 성태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공동성
3. 하룻밤 만에 만나 성관계를 맺는 것이 즐거울 수 있다.	.826	.252	·	.745
1. 어찌나 만난 사람과의 우발적인 성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다(허용할 수 있다).	.792	·	·	.684
2. 성관계는 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해도 좋다.	.770	·	·	.623
6. 성관계를 더욱 자유롭게 한다면 삶이 좀 더 즐거울 것이다.	.728	·	.349	.656
5. 상대방이 동의하면 성관계는 단순히 주고 받을 수 있는 호의로 생각한다.	.717	·	·	.536
7. 성관계 자체를 즐기는 것도 괜찮다.	.648	·	.498	.688
9. 성관계를 통해 두 사람이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	.771	·	.617
11. 성관계는 보통 극도로 강한 경험을 줄 수 있다.	.211	.717	·	.570
10. 성관계가 없는 인생은 매우 지루하다(성관계는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	.633	.633	.514
12. 기본적으로 성관계는 좋다.	.303	.594	.393	.599
4. 현재 만나는 사람과 꾸준히 성관계를 해도 괜찮다.	.432	.575	·	.523
15. 성관계는 식사를 하는 것과 같은 신체의 일부이다.	·	·	.766	.585
14. 성관계는 우선 육체적이다.	.209	·	.556	.379
13. 성관계는 우선 상대방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	.307	.547	.422
8. 자위행위는 괜찮다.	·	.344	.462	.364
고유치	5.66	1.80	1.05	
설명변량(%)	37.74	12.01	7.01	

주. 요인1: 충동적 성행동, 요인2: 개방적 성태도, 요인3: 긍정적 인상, ·은 요인부하량 .20 미만을 의미한다.

은 성관계'를 나타내는 6개의 문항들로 요인부하량은 .65~.83, 공통성은 .54~.75로 모두 .4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성관계 경험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기대와 같은 생각들'을 나타내는 5개 문항들로 요인부하량은 .58~.77, 공통성은 .51~.62로 .4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각 개인들이 성관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상'을 나타내는 4개의 문항들로 요인부하량은 .46~.77, 공통성은 .36~.60으로 일부 문항이 .4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요약하면, 허용적 성태도에서 세 개의 하위 요인을 발견하였고, 이들은 총 분산의 56.77%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 1을 「충동적 성행동」, 요인 2를 「개방적 성태도」, 요인 3을 「긍정적 인상(Impression)」으로 명명하였다(표 1).

다음으로 성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KMO (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도 검정 결과는 .60으로 .50 이상이었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이 유의하였으므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였다 ( $\chi^2_{15}=309.88, p<.001$ ). 배리맥스(varimax) 회전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폭력 가해 행동에서 2개의 하위요인을 발견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타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신체적 접촉이 포함되는 심각한 수준의 성폭력 가해 행동'을 나타내는 3개의 문항들로 요인부하량은 .54~.91, 공통성은 .34~.83으로 하나의 문항이 .4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경미한 수준의 성폭력 가해 행동'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요인부하량은 .68~.83, 공통성은 .52~.69로 .4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요약하면, 성폭력 가해 행동에서 두 개의 하위 요인을 발견하였고, 총 분산의 62.44%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 1을 「심각한 성폭력 가해 행동」, 요인 2를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으로 명명하였다(표 2).

**자기애의 하위 요인과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의 관계**

자기애의 각 하위 요인들과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표 2. 성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문항	요인1	요인2	공통성
6.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907	·	.830
5.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다 실패한 적이 있다.	.883	·	.816
4. 강제로 키스나 포옹, 애무를 한 적이 있다.	.541	.216	.339
2. 성적으로 놀린(농담 등) 적이 있다.	·	.827	.687
1. 전화나 문자로 음란성 메시지를 보낸 적 있다.	·	.730	.554
3. 추근거리거나 의도적인 신체접촉(부딪히기, 만지기)을 한 적이 있다.	.242	.680	.520
고유치	2.311	1.436	
설명변량(%)	38.51	23.93	

주. 요인1: 심각한 성폭력 가해 행동, 요인2: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 ·은 요인부하량 .20 미만을 의미한다.



실시한 결과, 자기애의 하위 요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애-과시 요인만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유의한 예측변수로 나타났고( $\beta=.14, p<.05$ ), 나머지 하위요인들은 유의하지 않았다.

**자기애-과시와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의 관계에서 허용적 성태도의 하위요인 별 매개 효과**

자기애-과시와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의 관계에서 허용적 성태도의 세 하위요인이 각각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다중회귀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애-과시가 충동적 성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beta=.26, p<.001$ ), 충동적 성행동은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beta=.30, p<.001$ ), 유의미하게 나타났던 자기애-과시와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의 관

계는 매개변수가 투입되었을 때 유의하지 않게 되었다( $\beta=.07, p>.05$ ). 즉, 자기애-과시와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 간에 충동적 성행동의 완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표 3).

또한, 자기애-과시가 개방적 성태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beta=.18, p<.01$ ), 개방적 성태도는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beta=.23, p<.01$ ), 유의미하게 나타났던 자기애-과시와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의 관계는 매개변수가 투입되었을 때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beta=.10, p>.05$ ). 즉, 자기애-과시와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 간에 개방적 성태도의 완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반면에 자기애-과시가 세 번째 하위 요인인 긍정적 인상(Impression)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나( $\beta=.15, p<.01$ ),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긍정적 인상의 예측력이 유의하지 않아,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beta=.13, p>.05$ ). 결과는 표

표 3. 자기애-과시와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의 관계에서 허용적 성태도의 하위요인 별 매개효과

	예측변수	준거변수	R <sup>2</sup>	F	B	SE	β	t
단계 1	·자기애-과시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	.02	4.306*	.18	.09	.14	2.08*
단계 2	·자기애-과시	충동적 성행동	.07	14.93***	.80	.21	.26	3.86***
단계 3	·자기애-과시 ·충동적 성행동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	.10	11.82***	.08 .12	.09 .03	.07 .30	0.96 4.35***
단계 1	·자기애-과시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	.02	4.306*	.18	.09	.14	2.08*
단계 2	·자기애-과시	개방적 성태도	.03	7.08**	.587	.22	.18	2.66**
단계 3	·자기애-과시 ·개방적 성태도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	.07	8.08***	.13 .14	.09 .04	.10 .23	1.52 3.41**
단계 1	·자기애-과시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	.02	4.306*	.18	.09	.14	2.08*
단계 2	·자기애-과시	긍정적 인상	.02	4.85*	.24	.11	.15	2.20**
단계 3	·자기애-과시 ·긍정적 인상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	.04	3.984*	.16 .11	.09 .06	.12 .13	1.78 1.90

주. \*  $p<.05$ , \*\*  $p<.01$ , \*\*\*  $p<.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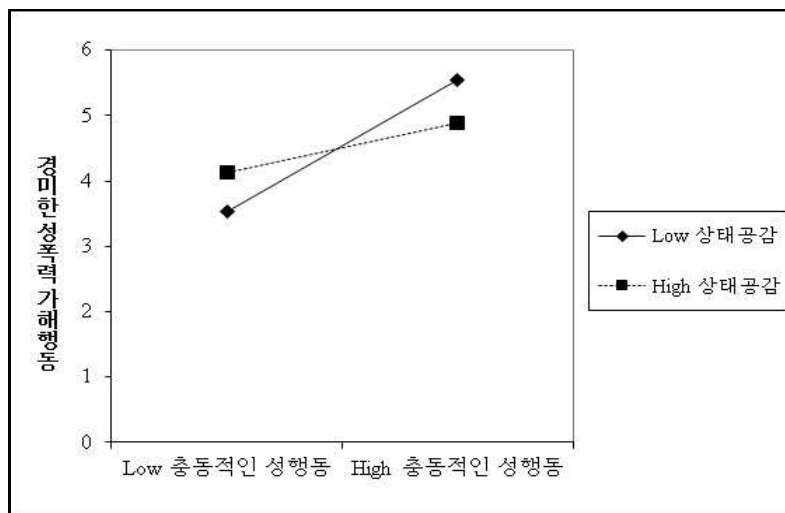


그림 2. 충동적 성행동과 상태공감 수준에 따른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의 차이

3에 요약되어 있다.

### 자기애-과시와 충동적 성행동의 관계에서 상태공감의 조절효과

자기애-과시와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 간의 매개변수로 확인된 충동적 성행동에 대한 자기애-과시와 상태공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충동적 성행동에 대한 자기애-과시와 상태공감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beta=.10, p>.05$ ).

### 자기애-과시와 개방적 성태도의 관계에서 상태공감의 조절효과

자기애-과시와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 간의 매개변수로 확인된 개방적 성태도에 대한 자기애-

과시와 상태공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방적 성태도에 대한 자기애-과시와 상태공감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beta=.30, p>.05$ ).

### 충동적 성행동과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의 관계에서 상태공감의 조절효과

자기애-과시와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 간의 매개변수로 확인된 충동적 성행동과 상태공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충동적 성행동과 상태공감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여( $\beta=-1.07, p<.05$ ),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상태공감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충동적 성행동의 효과가 감소하는 완충효과가 나타났다. 즉, 충동적

성행동과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의 관계에서 상태공감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Hayes (2013)가 개발한 SPSS macro PROCESS를 이용하여 95% 신뢰구간, 5000번의 부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적용하여 상태공감이 낮음(-1SD), 보통(M), 높음(+1SD) 수준일 때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총동적 성행동의 조건부 효과(conditional effect)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상태공감이 낮거나( $t=4.96, p<.001$ ) 보통일 때( $t=4.68, p<.001$ )는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총동적 성행동의 효과가 유의하였으나, 상태공감이 높

을 때( $t=1.77, p>.05$ )는 유의하지 않았다(표 4).

### 개방적 성태도와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의 관계에서 상태공감의 조절효과

자기애-과시와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 간의 매개변수로 확인된 개방적 성태도와 상태공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방적 성태도와 상태공감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여( $\beta=-1.16, p<.05$ ), 상태공감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표 4.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상태공감 각 수준 별 총동적 성행동의 조건부 효과

상태공감	Effect size	SE	t	LLCI	ULCI
낮음(-1SD)	.18	.04	4.96***	.11	.26
보통(M)	.13	.03	4.68***	.07	.18
높음(+1SD)	.07	.04	1.77	-.01	.14

주. \*  $p<.05$ , \*\*  $p<.01$ , \*\*\*  $p<.001$ .; LLCI: Low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I: 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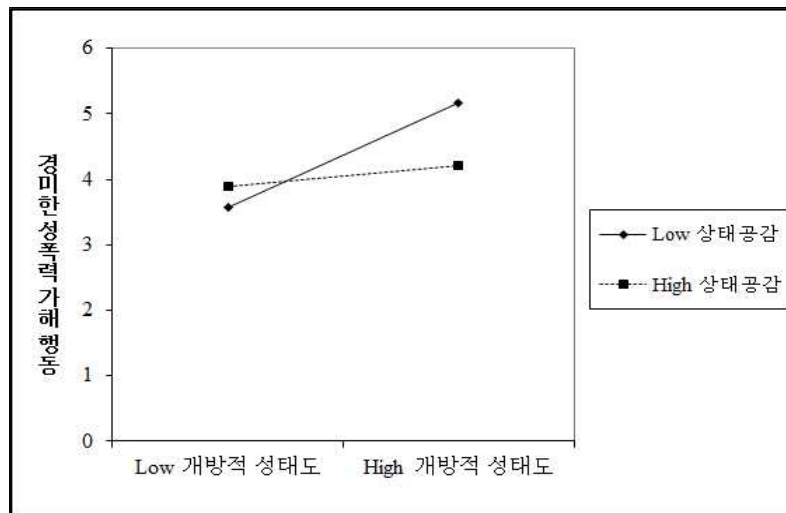


그림 3. 개방적 성태도와 상태공감 수준에 따른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의 차이

개방적 성태도의 효과가 감소하는 완충효과가 나타났다(그림 2). 즉, 개방적 성태도와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의 관계에서 상태공감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Hayes(2013)가 개발한 SPSS macro PROCESS를 이용해서 95% 신뢰구간, 5000번의 부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적용하여 상태공감이 낮음(-1SD), 보통(M), 높음(+1SD) 수준일 때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개방적 성태도의 조건부 효과(conditional effect)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상태공감이 낮거나(-1SD,  $t=3.90$ ,  $p<.001$ ) 보통일 때(M,  $t=3.78$ ,  $p<.001$ )는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개방적 성태도의 효과가 유의하였으나, 상태공감이 높을 때(+1SD,  $t=1.21$ ,  $p>.05$ )는 유의하지 않았다(표 5).

**상태공감에 의해 조절된 충동적 성행동의 매개 효과**

연구변인들 간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결과를 결합해서 자기애-과시가 충동적 성행동을 거쳐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상태공감이 매개변수의 효과를 조절하는 모형을 검증한 결과, 자기애-과시가 충동적 성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B=.80$ ,  $t=3.86$ ,  $p<.001$ ), 충동적 성행동은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을 유의하게 예측( $B=.12$ ,  $t=4.24$ ,  $p<.001$ )하는 동시에 충동적 성행동과 상태공감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B=-.00$ ,  $t=-2.27$ ,  $p<.05$ ). 즉, 상태공감의 수준이 증가할수록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충동적 성행동의 매개효과가 감소하는 완충효과가 나타났다. 즉, 충동적 성행동의 매개효과가 상

표 5.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상태공감 각 수준 별 개방적 성태도의 조건부 효과

상태공감	Effect size	SE	t	LLCI	ULCI
낮음(-1SD)	.24	.06	3.90**	.12	.36
보통(M)	.15	.04	3.78**	.07	.23
높음(+1SD)	.07	.06	1.21	-.04	.18

주. \*  $p<.05$ , \*\*  $p<.01$ , \*\*\*  $p<.001$ .; LLCI: Low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I: 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을 나타낸다.

표 6. 상태공감에 의해 조절된 충동적 성행동의 매개효과

	예측변수	준거변수	R <sup>2</sup>	F	B	SE	t
단계 1	·자기애-과시	충동적 성행동	.07	14.93***	.80	.21	3.86***
단계 2	·자기애-과시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	.13	7.64***	.08	.09	.99
	·충동적 성행동				.12	.03	4.24***
	·상태공감				-.00	.01	-.19
	·충동적 성행동×상태공감				-.00	.00	-2.27*

주. \*  $p<.05$ , \*\*  $p<.01$ , \*\*\*  $p<.001$ .

태공감에 의존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Hayes(2013)가 개발한 SPSS macro PROCESS를 이용해서 95% 신뢰구간, 5000번의 부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적용하여 상태공감이 낮음(-1SD), 보통(M), 높음(+1SD) 수준일 때 자기애-과시와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 간에 총동적 성행동의 조건부 간접효과(conditional indirect effect)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상태공감이 낮거나(-1SD) 보통(M) 수준일 때는 총동적 성행동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으나, 상태공감이 높을 때(+1SD)는 총동적 성행동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표 7).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상태공감에 의해 조절된 개방적 성태도의 매개효과**

연구변인들 간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결과를 결합해서 자기애-과시가 개방적 성태도를 거쳐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상태공감이 매개변수의 효과를 조절하는 모형을 검증한 결과, 자기애-과시가 개방적 성태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B=.35, t=2.46, p<.05$ ), 개방적 성태도는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을 유의하게 예측( $B=.14, t=3.51, p<.001$ )하는 동시에 개방적 성태도와 상태공감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B=-.00, t=-2.02, p<.05$ ). 즉, 상태공감의 수준이 증가할수록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개방적 성태도의 매개효과가 감소하는 완충효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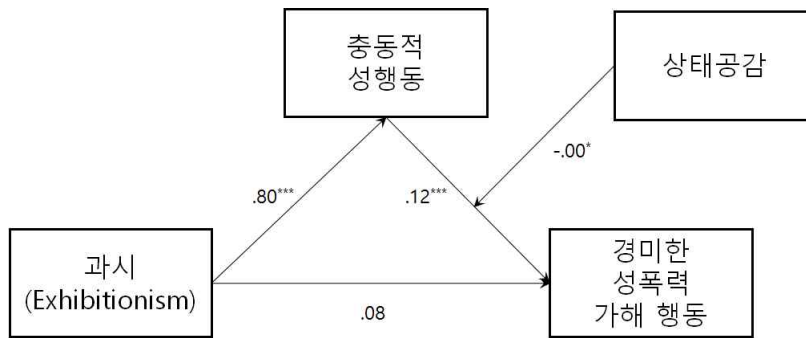


그림 5. 상태공감에 의해 조절된 총동적 성행동의 매개효과

표 7.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상태공감 각 수준 별 총동적 성행동의 조건부 간접효과

상태공감	Effect size	Boot SE	Boot LLCI	Boot ULCI
낮음(-1SD)	.14	.06	.05	.28
보통(M)	.09	.04	.04	.18
높음(+1SD)	.05	.03	-.00	.13

주. LLCI: Low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I: 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을 나타낸다.

표 8. 상태공감에 의해 조절된 개방적 성태도의 매개효과

	예측변수	준거변수	R <sup>2</sup>	F	B	SE	t
단계 1	·자기애-과시	개방적 성태도	.03	6.04*	.35	.14	2.46*
단계 2	·자기애-과시	경미한 성폭력	.10	5.66***	.14	.09	1.63
	·개방적 성태도	성폭력			.14	.04	3.51***
	·상태공감	가해 행동			-.01	.01	-.79
	·개방적 성태도×상태공감				-.00	.00	-2.02*

주. \*  $p < .05$ , \*\*  $p < .01$ , \*\*\*  $p < .001$ .

나타났다. 즉, 개방적 성태도의 매개효과가 상태공감 수준에 의존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조절된 매개효과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Hayes(2013)가 개발한 SPSS macro PROCESS를 이용해서 95% 신뢰구간, 5000번의 부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적용하여 상태공감이 낮음(-1SD), 보통(M), 높음(+1SD) 수준일 때 자

기애-과시와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 간에 개방적 성태도의 조건부 간접효과(conditional indirect effect)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상태공감이 낮음(-1SD) 혹은 보통(M) 수준일 때는 자기애-과시와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의 관계에서 개방적 성태도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으나, 상태공감이 높음(+1SD) 수준일 때는 개방적 성태도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표 9).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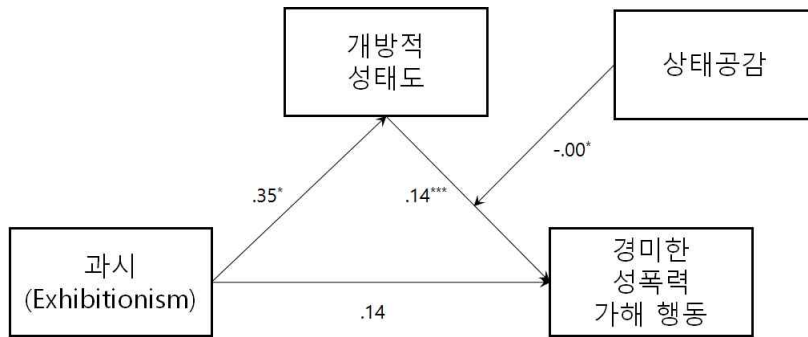


그림 6. 상태공감에 의해 조절된 개방적 성태도의 매개효과

표 9.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상태공감 각 수준 별 개방적 성태도의 조건부 간접효과

상태공감	Effect size	Boot SE	Boot LLCI	Boot ULCI
낮음(-1SD)	.08	.04	.02	.18
보통(M)	.05	.02	.01	.11
높음(+1SD)	.02	.02	-.01	.07

주. LLCI: Low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I: 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을 나타낸다.

## 논 의

본 연구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지나칠 수도 있는 경미한 수준의 성폭력 가해 행동과 관련된 성격 특질, 성에 대한 태도, 정서적 변인의 관계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치료적 개입에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기애와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의 관계에서 허용적 성태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이 매개모형에서 허용적 성태도에 대한 자기애와 상태공감의 조절효과와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허용적 성태도와 상태공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허용적 성태도의 각 하위요인 별 매개효과를 확인하기에 앞서 자기애의 각 하위요인을 예측변수로 투입하여,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각각의 예측력을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자기애-과시만이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기애성 성격 검사(NPI)에서 자기애-과시 요인은 ‘나는 기회가 되면 나의 자랑거리를 드러내 보이는 경향이 있다’, ‘나는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내 모습에 주목하지 않으면 속이 상한다’와 같은 문항들로 측정된다. 문항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자신의 가치 혹은 중요성을 실제 자신보다 과장되게 지각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경향으로 감각 추구(sensation seeking), 외향성(extraversion), 빈약한 충동 조절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Raskin & Terry, 1988).

이를 바탕으로, 자기애-과시와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의 관계에서 허용적 성태도의 하위요인으로 발견된 충동적 성행동, 개방적 성태도, 긍정

적 인상(impression) 각각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 긍정적 인상은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충동적 성행동과 개방적 성태도는 완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자기애가 허용적 성태도를 거쳐, 성폭력 가해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선행연구들(Mouilso, & Calhoun, 2012; 박다원, 이인혜 2015)과 일치하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더욱 구체적으로 자기애 하위요인 중 과시가 충동적 성행동 혹은 개방적 성태도를 거쳐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충동적 성행동과 개방적 성태도의 완전 매개효과는 자기애-과시가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매개변수들이 허위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자기애-과시가 직접적으로는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과 관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기애-과시에서 시작하여 충동적 성행동 혹은 개방적 성태도를 거쳐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으로 연결되는 모형에서 자기애-과시와 상태공감이 상호작용하는 유형과 상태공감이 충동적 성행동 혹은 개방적 성태도와 상호작용하는 두 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상태공감의 조절효과는 자기애-과시와 충동적 성행동 그리고 자기애-과시와 개방적 성태도 두 관계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충동적 성행동과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 그리고 개방적 성태도와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 두 관계 모두에서 상태공감의 유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자기애-과시에서 시작하여 충동적 성행동 혹은 개방적 성태도를 거쳐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으로 연결되는 간접효과가

상태공감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짐을 의미한다. 먼저, 충동적 성행동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상태공감이 높은 수준일 때는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충동적 성행동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상태공감이 보통이거나 낮을 때는 유의하였다. 즉, 자기에적 성향이 높은 사람들 중에 과시가 높은 사람들은 충동적인 성적 행동으로 인해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 때 타인에 대한 상태공감 수준이 낮으면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적절하게 인식하는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경미한 수준의 성폭력 가해 행동이 증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개방적 성태도의 경우도 상태공감이 높은 수준일 때는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개방적 성태도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상태공감이 보통이거나 낮을 때는 유의하였다. 바꿔 말해서, 자기에 중 과시가 높은 경우, 성적 행동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면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 때 상태공감 수준이 낮으면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적절하게 인식하는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경미한 수준의 성폭력 가해 행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상태공감이 자기에와 상호작용한다는 단순한 선행연구 결과에서 더 나아가, 자기에의 특정 하위요인이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상태공감이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자기에와 성폭력의 관계가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허용적 성태도에 의한 간접적인 관계일 수 있다는 본 연구자의 가정을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선행연구들에서 허용적 성태도가 성폭력의 위험요인으로 밝혀진 것과 유사하게, 허용적 성태도의 하위요인인 충동적인 성행동과 개방적 성태도는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의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세 번째 하위 요인인 긍정적 인상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아마도 긍정적 인상이 부정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전적 의미로서 성관계에 대해 개인이 가진 느낌이 얼마나 긍정적인지 혹은 익숙한지를 평가하는 문항들로 구성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자극에 한정된 공감반응을 측정함으로써 상황에 의존적인 공감 정도를 평가하였다. 이는 낮은 공감 능력은 성격의 문제라는 단순한 설명을 넘어서,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할 수 있게 해주고, 향후 연구에서는 특성공감과 상태공감을 비교함으로써, 특성공감과 상태공감이 일치하는지,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차이가 공감 능력의 결함인지 혹은 선택적인 공감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자기에 외에도 지금까지 공감능력의 결함이 원인이라고 알려져 왔던 많은 현상들이 정말로 공감 능력의 결함이 원인인지 등에 관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다.

본 연구는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과 관련 변인들과의 복합적인 관계를 하위요인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시도한 최초의 심리학적 연구이다. 지금까지 본 연구를 포함하여 성폭력에 대한 여러 분야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성폭력의 심각도 수준과 하위요인을 세분화하여 수행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사회현상 혹은 성격이나 태도와 같은 개념들은 단일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하위요인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상위요인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사회과학의 기본가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병리적인 성격특징인 자기애와 허용적 성태도, 그리고 성폭력 가해 행동을 각각 하위요인 별로 구분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데 집중하였고, 결과적으로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과 각 연구변인들의 하위요인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해야 할 제한점들이 존재한다. 먼저, 연구 표본의 제약으로 인해 일반화가 제한될 수 있다. 연구가 20대 초반의 남성들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다른 연령층, 여성, 성소수자 등 다양한 다른 집단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비교적 적응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표본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표본들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성폭력의 경미한 수준과 심각한 수준 모두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였지만, 심각한 수준의 성폭력 가해 행동을 적어도 1번 이상 보인 사람이 13명(약 6%)으로 표본의 대다수가 경미한 성폭력에 집중되어 있어 연구가 불가능하였다. 아마도 사회적, 직업적 장면에서 적응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건강인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심한 성폭력 가해 행동을 보이는 표본은 매우 적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표본의 크기를 더욱 늘리는 한편, 연구참여자들의 응답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에 기인한 과소보고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성폭력 범죄로 수감된 범죄자와 같은 임상집단과 비임상집단 간의 비교를 통해 비범죄자와 범죄자 간에 차이가 있는지 확

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두 번째 한계점은 변인들의 내적 요인구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자기애 외에 허용적 성태도와 성폭력 가해 행동을 측정하는 도구에 대한 타당화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게다가 자기애조차도 자기충분성을 포함하는 일부 하위요인에 내적일치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본 연구에 사용된 자기애 척도가 외국의 연구에 의해 결정된 요인구조를 사용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허용적 성태도와 성폭력 가해 행동의 하위요인을 확인하였지만, 좀 더 큰 표본을 대상으로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롭고 타당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척도에 대한 타당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고, 연구결과들에 근거하여 하위요인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한계점은 방법론적인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사용하여 각 변수들의 오차항까지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완전 매개효과 혹은 부분 매개효과를 확인해야 했으므로, 구조방정식을 적용할 수 없었고 오차를 고려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방법은 Hayes(2013)가 제안한 SPSS macro PROCESS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PROCESS는 경로모형을 검증할 때, 전체 효과 크기와 독립변수 외에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의 효과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고전적인 다중회귀분석에서 나타나는 단점인 반복검증으로 인한 1종 오류의 증가를 보완할 수 있다. 또한, 부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적용하여 변수의 효과를 신뢰구간으로 추정하여 제시하는데, 이는 일정

한 신뢰수준에서 표본추정치의 구간에 모수가 포함될 가능성을 오차한계범위 내에서 추정하는 방법이다(양병화, 2013). 즉, 신뢰구간의 하한계와 상한계 사이에 모수치를 포함할 확률을 제시함으로써, 추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Robert, 2010).

비록 이런 한계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현실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병리적 자기애의 성격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신역동적 개인치료 및 집단치료가 병행될 때 보다 적응적인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Gabbard, 2008). 그러나 이러한 치료는 시간적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비용이 크다. 본 연구 결과는 경미한 성폭력과 관련 있는 변인들을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 그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치료적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데 더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자기애-과시가 높은 즉, 자기애적인 사람들 중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타인의 주목을 받기 원하는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충동적인 성적 행동이나 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로 인해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는데, 이런 과정에서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민감하게 인식하는 능력의 부족은 가벼운 수준의 성폭력 가해 행동을 더욱 증가시킨다. 이와 같은 자기애 과시가 높은 대상의 경우, 진부하고 획일화 된 성폭력 교육이 아니라 대상의 특성에 따라 효과적으로 성폭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성폭력 범죄자 중에, 자기애 과시가 높은 경우라면 충동적인 성행동을 줄이기 위한 충동 조절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개입과 성 행동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바라볼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성폭력을 연상시키는 영상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시킨 후 피해자가 느낄 수치심, 모욕감, 불안, 공포 등의 감정과 자기파괴적이고, 비관적인 미래에 대한 생각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공감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가해자들의 적응적이고 건강한 사회복귀 및 생활을 위한 치료적 개입에 정보를 제공한다. 나아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개발 및 실시하고, 이를 통해 성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잠재적으로 피해를 받을지도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지키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 참 고 문 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4). www.law.go.kr
- 김정아, 구혜경, 현명호 (2013). 연구논문: 남자 대학생의 성희롱 통념과 공감능력 및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 사회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 연구, 20(6), 295-313.
- 박갑제, 임성문 (2013).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 경로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1), 45-44.
- 박다원 (2015). 자기애와 성폭력 가해 행동의 관계: 특권분노/허용적 상태도의 매개효과와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공감의 조절효과.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다원, 이인혜 (2015). 자기애와 성폭력 가해 행동의 관계: 특권분노/허용적 상태도의 매개효과와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공감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3) 377-394.
- 박성희 (2004). 공감학: 어제와 오늘. 서울: 창지사.

- 신현기, 이상열 (2006). 우리나라 성폭력범죄의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논총*, 16(1), 249-274.
- 양병화 (2013). 심리학 및 사회과학을 위한 조사와 통계 분석. 서울: 학지사.
- 이형직 (2008).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이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간통념 수용의 매개효과와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인숙 (2009). Hendrick 다차원적 성태도 척도의 타당화.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승희, 권일웅 (2015). 제 6 분과< 공무원 사기관리>: 발표; 조직운영의 평등성과 공정성이 여성 공무원의 승진 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5(단일호), 251-277.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Beverly Hills: Sage Publishing.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American Psychiatric Pub.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Fernandez, Y. M., Marshall, W. L., Lightbody, S., & O'Sullivan, C. (1999). The child molester empathy measure: Description and examination of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Sexual Abuse :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1(1), 17-31.
- Foster, J. D., Shrira, I., & Campbell, W. K. (2006). Theoretical models of narcissism, sexuality, and relationship commitment.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3(3), 367-386.
- Glen O. Gabbard. (2008). 역동정신의학 [Psychodynamic psychiatry]. (이경태, 채영래 역) 서울: 하나의학사.
- Hayes, A. F. (2013). <http://www.afhayes.com/>
- Hendrick, S., & Hendrick, C. (1987). Multidimensionality of sexual attitudes. *Journal of Sex Research*, 23(4), 502-526.
- Jonason, P. K., & Tost, J. (2010). I just cannot control myself: The dark triad and self-contro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9(6), 611-615.
- Kernberg, O. F., Clarkin, J., Fonagy, P., & Gabbard, G. (2010). *Psychodynamic Psychotherapy for Personality Disorders: A Clinical Handbook*, 257-287. Arlington: Amer Psychiatric Pub Inc.
- Mouilso, E. R., & Calhoun, K. S. (2012). A mediation model of the role of sociosexuality in the associations between narcissism, psychopathy, and sexual aggression. *Psychology of Violence*, 2(1), 16.
- Raskin, R., & Terry, H. (1988). A principal-components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5), 890.
- Robert B. McCall. (2010). 기초심리통계학 [*Fundamental statistics for behavioral sciences*]. (이관용, 김기중, 박영신 역) 서울: CENGAGE Learning.
- Wai, M., & Tiliopoulos, N. (2012). The affective and cognitive empathic nature of the dark triad of persona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2(7), 794-799.

원고접수일: 2015년 9월 20일

논문심사일: 2015년 9월 30일

게재결정일: 2016년 3월 4일

# Narcissistic Exhibitionism, Sociosexuality and Mild Sexual Violence :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tate Empathy

Da-Won Park

ChunCheon National Hospital

In-He Yi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Kangwon National University

Previously, mild sexual violence such as vulgar jokes was more common than acts of severe sexual violence, including sexual coercion, attempted rape and rape. However, recent studies show that narcissism and sociosexuality are risk factors of sexual aggression; whereas, state empathy is a protective factor.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stic personality traits and mild sexual violence, in order to prevent sexually violent crimes and develop detailed intervention strategies for sex offenders. We accordingly examined the moderated-mediating effects of state empathy among narcissistic exhibitionism, sociosexuality and mild sexual violence in a non-clinical group. Data were obtained from male students i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wo-hundred and ten students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such as K-NPI and K-CME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suggested that narcissistic exhibitionism of 7 K-NPI subscales was identified by the only predictor of mild sexual violence. Second, each sociosexuality subscales (impulsive sexual behavior or open minded perspective in sex) completely mediated a relationship between exhibitionism and mild sexual violence. Finally, higher state empathy significantly decreased mediating effects of sociosexuality subscales, indicative that the mediating effects were instead moderated by state empathy. The moderated-mediation indicates that the effect of narcissistic exhibitionism on mild sexual violence via a mediator (impulsive sexual behavior or open minded perspective in sex) differs depending on the levels of moderator (state empathy) in males.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were discussed.

*Keywords:* narcissistic exhibitionism, impulsive sexual behavior, open minded perspective in sex, state empathy, mild sexual violence